

服飾史 研究方法에 관한 小考 (I)

A Study on the Research Methods in History of Costume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申 尙 玉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Chung 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ang Ok Shin

<目 次>

I. 序 論

II. 結 論

II. 研究資料의 분석

參考文獻

<Abstract>

We must identify the forms of dress devised throughout ages, when we study, interpret and analyze the numerous resource material of costume. The study which depends on reference to actual artifacts is necessarily limited. Whereas items of contemporary dress are readily available, much from earlier eras has been destroyed or has deteriorated through time. Such as cottons, linens, silks, wools, leathers and furs are perishable organic materials.

Few garments dated earlier than seventeenth century has survived except armor, jewelry. We have many sources of the information are available to study on costume of earlier eras. These sources are wall paintings, sculptures, painting, monumental brasses, manuscript illustration, ceramics, coins, medals, mosaics, archives, literature.

Wall paintings and frescoes provide an useful source for costume study. Many wall paintings and frescoes were destroyed, were changed in color. It is advisable to interipret the dress detail, form, color carefully. Sculpture would be useful to see the back and side views of dres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which should be made about the use of sculpture as a source for costume study in early periods is that the sculptor's style will often change the character of a costume. As the painting is two-dimensional evidence for a three-dimensional costume, paintings must be accurately studied.

What we must do, as far as we can, is to look at all visual representations in the light of other contemporary evidence in order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correctly.

I. 序 論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의류학분야의 연구업

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학회지에 발표되었던 의류학분야의 논문中 복식사계통의 연구내용이 31.9%로 다른 계통에 비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

우리나라에서 현재 복식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韓國服飾史에 관한 연구는 政治的 經濟的으로 不運했던 과거 歷史 속에 묻혀서 개척되지 못했던 분야로 韓國學의 定立과 보조를 맞추어 한국 복식사 학자들은 熱意와 召命意識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에 임하고 있다.

服飾史의 연구는 어느 時代의 服飾이 어떻게 해서 生成되었으며 그 時代에 어떠한 存在樣相을 띠었고 어떻게 변모발전하였으며 現在는 어떠한 형태로 이어져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고 各 時代의 社會制度和 社會환경이 服飾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中心으로 時代的 배경과 服飾과의 관계를 究明하고 衣服의 구조속에 잠재해 있는 傳統性和 服飾 전반에 관련된 技術의 類型을 파악하는 것이 服飾史 研究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最近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服飾史 연구경향은 西洋服飾이나 東洋服飾만의 독립된 연구보다 東洋과 西洋文化의 상호교류에서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의한 服飾형태 고찰등, 비교 연구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본인이 西洋服飾史에 관한 집필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國內에 西洋服飾 展示 박물관이나 實物資料가 없으므로 研究資料를 確認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참고할 만한 服飾史의 研究方法論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백년이나 천년전에 있었던 衣服의 형태, 色彩, 입은 모양등을 서술함에 있어서 문헌적인 資料만으로 인용하고 推論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되리란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韓國服飾史와 西洋服飾史 研究를 하기 위해 資料를 수집하고 분석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오해와 오류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Janet arnold¹⁾의 服飾研究 方法論에 주로 의존하여 西洋服飾史의 年代와 內容을 가지고 研究資料 別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研究資料 中에서 벽화, 조각, 그림, 筆寫本, apesstry 를 연구 내용으로 하였고 다음 기획에 기타 다른 資料 분석에 관한 것을 다루려고 한다.

Ⅱ. 研究資料의 분석

衣服은 그 材料가 대부분 綿, 麻, 絹, 羊毛, 가죽과 같은 유기물질로 되어 있어서 영구 보존되기 어렵다.

심하게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역이나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유기물질의 보존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집트의 유물들은 건조한 기후조건에서 보존이 가능했고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발견된 무덤의 관속에서 청동기시대(B.C 1500~B.C 1,100)의 衣服이 원형대로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병장된 상태로 있었던 데 기인한다.

실제로 西洋의 衣服 實物은 17세기 이전의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썩지 않는 갑옷, 보석, 악세사리 등이 남아있는 정도이므로 古代와 中世의 服飾 研究에서는 古代와 中世의 編年史, 분묘의 벽화, 조각, 그림, 기념물, 필사본, 도자기, 鑄貨, 매달 모자이크, 古文書(재산 목록, 증서, 계산서, 고용 계약서등), 문학작품(詩, 소설, 연극, 편지, 일기 회고록, 탐험기), 사치단속 법령등이 자료로 쓰이며 현대에 가까운 것으로는 衣服實物, 풍자화, 신문잡지의 광고, 포스터, 영화, 사진, fashion doll, fashion illustration, 패션잡지, 패턴북을 예로 들 수 있다.

1. 壁畫, 후레스코畫(Frescoes)

벽화는 대부분 건물 내부를 장식하는 것으로 古代의 것은 무덤내부의 장식으로 쓰였으므로 太陽光線과 風雨로 인한 파손이 적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집트인은 피라미드 내부에 무덤 主人과 관계 있는 日常生活의 모습을 벽화로 장식하였으므로 사회 모든 계층 사람들의 衣服형태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집트 예술가들은 人物과 衣服 묘사에서 상형문자와 같이 도형화되고 간략하게 규격화된 표현을 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로인크로스(loin cloth)나 튜닉을 입고 있는 그림이 실제로 옷을 입어 보았을 때 재현되기 어려운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술가의 표

1) 33차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연세초록 p. 24.

2) A Handbook of costume 의 저자

현 樣式과 衣服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후레스코畫는 벽화이나 갓 칠한 회벽에 水彩로 그리는 畫法으로 보통 벽화보다 보존성이 강하다.

가장 오래된 후레스코畫는 크리트의 “투우사의 벽화”(B.C 1500)와 에트루리아의 “두 舞姬”가 있으며 로마시대의 것은 폼페이에 보존되어 있다. 古代의 후레스코畫는 벽에 균열이 생기고 얼룩과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곳을 후세에 재생하여 복원한 것이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13세기에서 16세기에 후레스코畫를 성당, 교회, 궁전에 많이 그렸고 이壁畫들이 현재까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나 이러한 후레스코畫는 교회 천정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 어두컴컴한 교회 내부에서 관찰할 때 色彩의 分別에 주의해야 하며 세밀한 부분은 쌍안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확을 기할 수가 있다.

2. 彫刻(Sculpture) 浮彫(Relief)

나무, 돌, 상아, 석고, 구리등의 재료로 만든 조각물과 浮彫는 벽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資料源이 된다.

조각물은 立體이므로 뒷면 옆면의 관찰이 가능한 좋은 점이 있다.

수메르(Sumer)인이 만든 彫像이나 아시리아인의 浮彫는 衣服의 형태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대리석 彫像은 Chiton이나 Toga 의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의 美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각가의 작품 스타일에 따라 衣服의 모양이 달리 표현되고 名匠의 작품일수록 사실과 거리가 생기므로 평면적인 그림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로마시대에는 그리스 彫刻의 模作이 많으므로 이러한 模作에는 로마적인 要素가 섞였을 가능성을 참작해야 한다.

中世에 건축된 전 유럽의 대수도원, 성당, 교회 내부 彫刻物에는 當代的 衣服을 입고 있는 人物이 묘사되어 있으나 聖者和 聖母성직자가 主題이므로 성직자들의 衣服과 보통사람의 衣服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덤에 있는 彫像은 무덤주인의 사망일자보다 前에 만들어 질 수도 있고 王의 거대한 분묘일수록 사망일자보다 훨씬 이전에 築造했을 경우에 彫像의 衣服年代는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며 무덤 앞에 세우는 기념물은 반대로 사망일자보다 후에 가족이나 자손들에 의하여 세워질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한다.

3. 그림(Painting)

그림은 衣服實物이 남아있지 않은 時代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油畫로 된 人物畫는 藝術史의 作品年代에 따라 服飾史에서도 참고가 된다.

그림을 참고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그림 그린 날짜와 그림의 主題, 화가의 국적, 화가의 畫法을 파악하는 일이다³⁾. 그림 그린 날짜는 화가가 직접 써 넣기도 하나 후대 자손들이 틀린 날짜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화가의 후원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화가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릴 경우 후원자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왜곡되게 그리거나 수정하여서 當代的 衣服을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주인공과 화가의 국적을 알아보는 것은 나라마다 服飾의 특징이 있으며 화가의 국적에 따라 화가 자신의 자라난 배경의 요소가 무의식 중에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위한 것이다.

화가의 테크닉은 그림의 사실성을 좌우하게되는데 화가가 그림을 단축법이나 원근 투시 화법으로 표현할 경우 衣服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마네(Manet), 르노와르(Renoir)와 같은 화가는 세밀하게 衣裳디테일을 묘사하였으므로 좋은 자료가 되나 技法이 특이한 화가는 衣服의 色, 무늬 직물을 중요시 하지 않고 색다른 그림 효과는 얻는데 흥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르네상스초기부터 油畫의 技法이 발달하여 16, 17, 18세기의 人物畫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18세기의 그림은 新古典主義의 영향을 받아 화가들은

3) 前 册서 p. 18.

當代의 衣裳보다 古典的인 그리스풍의 드레이퍼리를 적용시켜 그것으므로 그림의 服飾은 일반 服飾과 차이가 있다.

18세기의 화가 반다이크(Vandyke)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衣裳 소도구를 갖추어 놓고 모델에게 같은 옷을 입혀서 그린 그림이 여러 작품 남아있으므로 특유한 반다이크 칼라가 달린 스튜디오 衣裳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르네상스시대 이후에 유럽 왕실의 肖像이나 귀족의 肖像을 그릴때 작품제작 기간이 수 개월 이상 걸린 경우에 人物의 얼굴과 衣裳을 따로 그리게 되거나 衣裳의 복잡한 디테일은 유명한 화가 자신이 전부 그리지 않고 助手들이 제작하게 되면 원래의 衣裳과 다르게 주름이 덜 잡히거나 옷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가 있다.

이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림의 原本을 복사할 경우에 後代에 복사하는 화가 자신의 時代의 服飾요소가 加味될 수가 있으며 原本은 아주 소멸되고 모조품만 남게 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림을 자료로 이용할 때에 성급한 판단에 앞서 以上에 열거된 문제점들을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4. 筆寫本, 도화(Drawing)

筆寫本과 도화에서 연필이나 펜, 초크, 붓을 재료로 그린 그림은 油畫에서는 부족한 섬세한 線과 운동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油畫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가 있으면 완성된 油畫작품과 스케치 原本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유용한 자료가 된다.

筆寫本은 10세기末부터 16세기까지의 유럽 服飾研究의 좋은 자료가 되며 그림의 主題는 聖母, 聖者, 크리스트의 생애에 관한 것으로 귀족이나 부유한 교인들의 개인 기도서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제작된 것이다.

이들 筆寫本에 彩色된 그림들은 그 책의 내용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종이에 사용된 染料의 색종류가 제한되어 있어서 當代 衣服의 색을 筆寫本에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던 점에 유의하여 천연염료를 매염제를 써서 직물에 염색하였을 때 생

기는 효과등을 얻기 위해 染料의 연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후는 政治的인 主題나 當代 衣裳과 心理를 풍자화로 나타낸 것이 많다.

이 풍자화들은 主題의 개성을 살리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였다는 것을 현대 Fashion illustration에서 과장된 人體 프로포션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Tapestry는 14, 15세기에 城이나 궁전 돌벽에 난방과 장식의 용도로 걸었던 것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이 tapestry들은 수놓은 사진이라고 표현할 만큼 섬세하게 衣服 디테일이 묘사되어 있으나 주의할 점은 상당수의 것이 부분적으로 후대의 재료에 의해 재생되었거나 색이 바래고 먼지가 많이 끼어 있으므로 色相은 뒷면을 관찰하는 것이 본래의 색에 가까운 것을 추적할 수 있다.

Ⅲ. 論 結

服飾史의 研究方法에는 考古學的인 方法, 民俗學的인 方法, 歷史學的인 方法등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가 있다.

歷史學的인 研究에서는 資料를 수집하여 검토비판하는 과정에서 衣服實物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신중한 태도로 다루지 않으면 推論 과정에서 誤謬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古代의 벽화를 자료로 쓸 경우 後世에 再生 복원한 것인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며 본묘의 조각이나 浮彫의 제작일자와 무덤 주인의 사망일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은 화가의 작품 스타일에 따라 服飾이 사실과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立體구성인 衣服을 평면에 묘사하는 데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료를 분석할 때 한가지 만이 아니고 같은 시기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으면 推論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誤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Janet Arnold, *A Handbook of Costume* Macmlilan. 1973. p. 1-128
2.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 Hudson. London. 1967.
3.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ew One Volume Edition, 1968.
4. Mary Ellen Roach,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rentice-Hall. Inc. 1973. p. 3-p33.
5. Rachel H. Kemper, *A History of Costume* Newsweek Books, New York, 1979.
6.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1965.
7. 車培根 :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 世英社, 1979 p. 249-270.